한라산에 항공레이더 설치 괜찮을까?

1100고지 인근 1500여㎡ 부지에 이르면 이번 주 착공
지하 1층 터파기 공사에 道 "원형 훼손 없는 것 판단"
훼손 명확한 기준 없어… 환경단체 "제도 취지 흔들"

한라산 1100고지 인근에 들어설 항공레이더 시설 공사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 건설 예정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법에 따라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조건으로 항공레이더와 같은 무선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이번 공사는 지반을 지하 1층까지 파내는 터파기 등이 예정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 공사를 이르면 이번주 또는 다음주쯤 시작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시설은 제주 남부 지역 항공로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를 감시하는 시설로, 기존에 있는 동광레이더보다 더 우수한 감시 능력을 갖고 있다.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는 한라산 1100고지 인근 서귀포시 색달동 1-3번지 149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건설 예정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제주도는 한라산 전체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에서는 등산로, 산책로,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 학술·연구 목적 시설, 전파법에 따른 무선시설 등만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등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시설에 해당해 건설 예정지가 절대보전지역이라도 지사 허가를 받으면 건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4월 제주도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단 제주특별법은 등산로, 산책로, 공원시설과 달리 무선시설에 대해선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엄격한 조건을 달고 있다.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는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반을 깊게 파야한다.

제주도는 레이더 건설 공사가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고 보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가 들어설 부지는 공터로 건설 과정에서 나무 벌채 행위 등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터파기 공사 등이 예정돼 있는데, 원형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애초부터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엔 "최소한의 형질 변경과 원형 훼손을 동반하지 않는 공사는 없다"면서 "기계적 잣대를 들이대면 절대보전지역 내 건축 행위는 아예 못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건축 가능한 조건을 단 특별법의 내용과도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따라서 절대보전지역 내 건설 행위 가능 여부는 전적으로 행정 자체 판단에 달려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를 건설하려면 지하 1층까지 파내야 하는데 누가봐도 원형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냐"면서 "제주도 판단에 따라 원형 훼손 여부가 판가름난다면 절대보전지역 제도 도입 취지가 흔들리게 된다.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는 과거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정지가 매립·개발이 금지된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자 공사를 위해 논란 끝에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한 적이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가을바다 '북적' 12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제주의 가을바다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초고령사회 대비 생산가능 인구유입 시급"

서귀포 노인인구 20%… 베이비부머 세대 가세로 더 늘 듯
"청년층 흡수 스마트팜·스타트업타운 조성 등 다각적 모색"

서귀포시가 연내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1차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 특성상 청년층 등 생산가능 인구 유입방안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서귀포시 인구는 지난 7월말 기준 18만2959명이며 이중 만 65세 이상은 3만6197명(19.8%)이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가 서귀포시 인구의 14.2%를 차지하며 노인인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시의 노인인구 비율 14.7%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서귀포시의 1차산업 비중(2018년 확정치)도 20.2%(제주시 17.5%)에 이른다. 여기에 저출산 문제와 제주시와 타지역으로의 인구 유출도 심화되며 고령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 대비 농작업 기계화·자동화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월말 기준, 21억1500만원을 투입해 농작업 편의장비 674대를 제공했고, 8농가·28ha에 2억1100만원을 들여 과수분야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했다.

또한 시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 95명에 대해 7억4400만원을 투입했다.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나서며 인구 유입에도 나서고 있다. 아울러 2019년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베이를 운영하며 청년인구의 유입 및 지역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촌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 흡수를 위한 ICT이용 스마트팜 사업을 비롯해 청년창업농 지원, 스타트업타운 조성(2021~24년, 국비 지원 212억원 규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말 초고령사회로 진입에 따른 대응책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생산가능 인구 유입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해 설 **제주형 뉴딜 2.0 어떤 내용 담았나?**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12일 제주도청에서 '제주형 뉴딜 2.0'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오는 2025년까지 6조4469억원을 투자할 예정인 제주형 뉴딜 2.0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에 대응하는 국비확보 전략이자, 장기적으로는 제주 미래 먹거리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의 뉴딜 2.0 계획이다.

제주형 뉴딜 2.0은 그린·디지털·휴먼·지역균형 뉴딜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그린 뉴딜**=CFI2030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저장~활용~산업화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미래 신산업 발굴 등 국내·외 탄소 중립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재활용 산업을 육성,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자원 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탄소흡수원 확충, 기후변화 적응 지원 등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해양공간, 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에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비대면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ICT 기술을 생활 인프라에 접목해 안전·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제주형 데이터 댐을 구축해 빅데이터를 활용, 1차산업·관광산업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메타버스, 5G·AI 등 기술 활용 신산업 육성, 우주개발 연관산업 거점 조성으로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는 한편 청정바이오·화장품 산업 등 지역 특성화 산업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휴먼 뉴딜**=제주 미래를 이끌 청년에 대한 고용·생활 안정 지원, 맞춤형 일자리 확대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심화된 양극화와 돌봄 격차에 대응해 복지전달 체계와 취약계층 돌봄을 강화한다.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 정책도 추진한다.

제주형 방역을 기반으로 전 도민과 국민이 힐링·치유하는 제주의 브랜드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균형 뉴딜**=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향과 연계해 유형별사업을 발굴해 국비 확보 등 정부 대응을 강화해 나간다. 주민주도형 뉴딜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실행-성과를 공유해 뉴딜사업의 지역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며, 추가사업 반영 및 국비확보,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후 지난 1년간 총 6279억원(국비 3369, 지방비 2510)이 투입됐으며, 그 결과 4700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그린 수소 생산·실증(204억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220억원) 등 핵심사업의 정부 공모 선정 규모는 3000억원에 이르며, 내년도 국비는 1762억원(잠정)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 · 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페르카 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핵심물질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Cocoly
용량 : 20kg
NAVER Daum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밭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21세기 농업은 미생물 농법으로
가이아 바이오 토양 미생물제재
부스트 팜 ⇒ 탄생
사용방법
○ 20ℓ(1말)을 100배(100말)희석 1,000평 관주
○수돗물을 사용시는 하루 지나서 희석
사용효과
○ 질병 예방(세균성, 곰팡이성) ○ 토양 이끼 제거
○당도 · 과중 증가, 저장성 증대 ○ 기형과 감소로 인한 수확량 증대
○토양을 기름지고 숨쉬는 옥토로 바꿈
사용시기
○ 거름(퇴비)을 시비한 후 관주 ○ 영양 생장 · 비대기때 관주
○ 엽면시비는 200배로 희석 사용
본 제품을 시제품으로 사용할 농가께서는 연락을 주십시오
010-2633-5349 부 영 인
곰탱이 감귤 유통상사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